

“중생 성불 전하러 우리곁에 오신 성철스님”



복원된 성철 스님의 생가와 겹외사 사이에 2001년에 조성한 스님의 동상(강대철 작)

① 겹외사(劫外寺)

한국불교 1600년 연보(年譜)속에서 최근에 주목받은 대목은 단연 ‘성철’ 일 것이다. 스님이 남긴 생각이 출제가를 가리지 않고 한국 현대불교사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깨달음’에 대한 스님의 믿음과 신념은 한국불교를 뜨겁게 데웠고, 그 열기는 한국불교를 지탱시키고 숨 쉬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런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이 적멸에 든 지 벌써 20년이 흘렀고, 올해는 탄생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이제 스님이 걸어간 발자취는 의심할 수 없는 길이 됐고, 스님을 잊지 못하는 이들은 스님의 향훈을 따라 순례를 시작했다. 2월 23일 현관식을 갖고 출발한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수행도량 순례단(단장 엄상호)’이 바로 그 첫 시발점이다.

불교인재원과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지난 해부터 준비해 발족된 순례단은 3월 31일 스님의 생가인 경남 산청 겹외사에서 출범식을 겸한 ‘영원한 자유인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법회’를 봉행하고 순례를 시작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윤희택 스님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중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이미 성불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며 “스님 말씀처럼 오늘 이 순례길이 부처를 찾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성불한 나 자신이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는 순례가 됐으면 합니다.”고 순례의 의미를 새겼다. 이어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법어를 독송하며 스님의 뜻을 받을 것을 서원했다. 법회 후 순례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500포대를 산청군에 보시했고, 참가비 중 1천원씩을 사찰에 시주했으며, 5천원씩은 인재양성기금으로 적립했다. 순례단은 산청 대원사와 합천 해인사 등 성철 스님 수행도량 24 곳을 매일 한차례씩 2014년 8월까지 찾기를 예정이다. 순례단은 개인 또는 신도회, 사찰, 직장신도회 단위로 동참 가능하며 상시 모집한다. 1661-1108(불교인재원 순례단)



복원된 성철 스님 생가(2001년, 3월 30일 준공). 겹외사는 생가 왼쪽에 대웅전과 오른쪽에 심검당, 요사채를 두고 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210번지, 스님은 1912년 음력 2월 19일 이곳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이곳에서 길을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스님은 20대 때 우연히 읽게 된 <증도가>라는 책으로 인해 발심하게 된다. 새로운 공부에 눈을 뜬 스님은 지리산 대원사로 들어가 <서장>을 읽게 되는데, 그 때 무(無)자 화두를 만나게 된다. 정진에 든 지 40일 만에 동정일여(動靜一如)를 체험한 스님은 1936년 봄에 가야산 해인사로 출가한다. 그렇게 책 두 권에 침몰한 한 젊은이는 천륜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놓고 불가(佛家)에 이름을 적는다. 어느 날,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길을 나선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가져갔던 음식과 옷가지만 놓아둔 채 돌아서야 했다. 법회 후, 스님을 모셨던 원택 스님이 겹외사와 스님의 일화들을 소개했다.

복원된 스님의 생가를 외호하기 위해 세워진 겹외사의 이름은 세속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진리와 함께 하고 있는 절이라는 뜻으로, 스님이 말년에 부산에 머물던 거처의 이름인 ‘겹외사’에서 따왔다. 겹외사는 일반적인 가람 배치와는 다르다. 일주문이 따로 없고 누각을 통하여 도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

“가르침 곱씹으며 자비행 실천하자” 300여 불자 서원...산청군에 쌀 보시 생가 복원 겹외사 ‘시공간 벗어난 진리 도량’

다. 범당인 대웅전과 대웅이 정진하는 심검당, 요사채가 있고 마당 한 가운데는 성철 스님의 동상이 모셔져 있다. 어머니도 불러오지 못했던 아들 ‘성철’ 그 아들은 그렇게 돌아와 있었다. 스님을 잊지 못하는 이들의 손에 이끌려 100년 전의 마당에 돌아와 있었다. 스님의 동상 뒤로 복원된 스님의 생가가 있다. 300여 명의 순례자들은 스님의 어린 시절과 출가전의 모습을 떠올리려는 듯 집안 이곳저곳을 꼼꼼히 걸었다.

순례는 시작했다. 다시 읽고 싶은 책처럼 스님이 걸어간 길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적멸에 든 선지식을 다시 불러내야 하는 걸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던 스님의 조용



300여명의 순례단 참가자가 첫 순례자인 겹외사를 찾아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순례자들이 스님의 생가를 꼼꼼히 둘러보고 있다.

한 일갈을 우리는 순례를 시작하는 길목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명징한 소리를 ‘성철’이라는 이름 없이도 기억해 낼 수 있을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순례는 계속될 것이며, 또한 그 길에 나선 이들은 순례길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부처님의 자비행을 쌓을 것이다. 순례는 이미 시작했다. 산청 겹외사=박재완 기자 waniholo@hynbul.com

■ 순례 일정표

회차	년도	일자	사할명
1	2012	3.31	산청 겹외사
2		4.28	산청 대원사
3		5.26	합천 해인사
4		6.23	부산 범어사
5		7.7	통도사 백련암
6		9.1	은혜사 운부암
7		9.22	대구 동화사
8		10.13	순천 송광사
9		11.3	예산 수덕사
10	2013	3.30	서산 간월암
11		4.27	법주사 복천암
12		5.25	선산 도리사
13		6.15	문경 대승사
14		7.6	문경 봉암사
15		8.31	부산 묘관음사
16		9.28	고성 문수암
17		10.12	통영 안정사
18		11.8	청원 성주사
19	2014	3.29	용문사 백련암
20		4.26	파계사 성전암
21		5.24	부산 해월정사
22		6.14	서울 도선사
23		7.5	문경 김홍사
24		8.30	해인사 백련암

목경찬 저음 | 264면
15,000원

www.bulkwang.co.kr | @bulkwang_c | www.facebook.com/bulkwang

唯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 나름이란 뜻?

- 약인욕로지 若人欲了知
-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一切唯心造]
오직 식뿐 [萬法唯識] 입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목경찬
불광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각원사·능인선원·삼광사·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011~2012

원산 스님 영진 스님 정념 스님
평상 스님 승원 스님 진화 스님
심우 스님 진옥 스님 지장 스님
퇴휴 스님 해월 스님 본각 스님
지현 스님 호성 스님 상덕 스님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가장 사랑받았고 감동적이었던 열다섯 분 스님들의 범문을 가려 엮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왜 내 이웃을 살피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지

열다섯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

원산 스님 외 14명 / 176쪽 / 11,000원